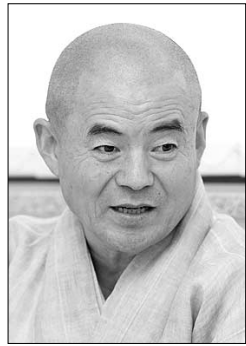


### 인연법을 알면 삶이 보여요

‘...마음공부’ 낸 혜국 스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지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인연’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사람을 만나거나 우연히 어떤 장소에 가게 되는 것도 다 ‘인연’이라 말한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 ‘인연이 뭐냐’고 물을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혜국 스님(석좌사 회주·제주도 남국선 원장)은 <인연법과 마음공부>(효림, 3천5백원)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 무엇인지 부처님의 설법과 설화를 토대로 전개한다. 스님은 우선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과정 속에 들어가 다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인연법이라고 일러준다.

스님은 인연법이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 부처의 세계를 보는(信解行證)’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마음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마음공부’란 무엇일까.

“우리 마음에 구름처럼 쌓인 의식의 층을 제거하고 마음속의 자기 자신을 찾아내기 위한 수행을 ‘마음공부’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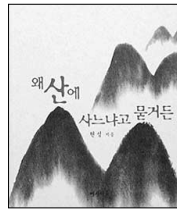
그 실질적 방법으로 혜국 스님은 “반드시 화두(話頭)를 드는 관화선(禪話)으로 수행하라”며 참선을 강조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참선’이 아니라, 염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스님이 불자들에게 행하라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형식적 수행’이 아니라 참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것이다.

“하늘에 떠 있는 진짜 달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디 그 달을 찾아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님의 마지막 당부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볼 수 있는 ‘나’가 되기 위해 떠나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여수령 기자 snooopy@buddhapia.com

## 소박하고 정겨운 산생활의 충만함



왜 산에 사느냐고 묻거든 현성 스님 지음 | 여시아문 | 9천원

‘토굴생활은 상근기 아니면 하근기가 한다’는 말이 있다. 즉 출중해서 대중들과 함께 살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거나 너무 게으르고 부족해서 단체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다.

토굴생활을 서정적으로 기록한 산문집 <왜 산에 사느냐고 묻거든>을 쓴 현성 스님(사진)은 스스로 후자에 속함을 고백한다. 이 책에서 현성 스님은 “천성이 게으르고 부족한 면이 많아서 스스로를 제어할 필요” 때문에 안거 해제 때마다 토굴생활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토굴생활을 하며 나만의 청규(淸規)를 제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란다. 스님이 정한 네 가지 청규는 ‘게으르지 않기 위해 제 시간에 하루 세끼 밥먹기’, ‘낮잠 자지 않기’, ‘TV 보지 않기’, ‘하루 한번씩 참선, 책 읽기, 산책, 나무하기’ 등. 엄격한 선승의 고행은 아니지만 스스로에게 진솔한 여유로운 마음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의롭지만 흥만한 산골 생활에서 겪은 잔잔한 에피소드들이 맑고 세련된 문체에 담겨 소담스럽게 피어나, ‘왜 산에 사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된다. 하루에 네 번 오는 시골 버스,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러 가는

양철판을 맡아서 세웠던 두 개의 굴뚝, 처마 밑 흙속에 집을 짓고 살던 쌍살벌들, 늘 다니던 산책코스 등 모든 일화들이 소박하고 정겹다.

특히 겨울 안거를 가기 전 만났던 세끼 들고양이는 스님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꼬리는 잘리고 발은 절뚝거리는데 아주 작은 새끼였는데, 항상 스님이 불을 때고 난 부뚜막에서 살았다. 새끼 고양이

### 깊은 산 토굴에서 정진하며 겪은 일화 잔잔하게 담겨

이에 대한 스님의 사랑은 마치 중생을 사랑하는 부처님의 마음이라고나 할까.

“겨울 안거를 마치고 돌아오니 녀석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겨울에 얼어죽지는 않았지만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 비틀거리는데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웠던 기억이 있다.”

현성 스님은 밖에서는 이리저리 시류에 흔들리며 주관을 잃고 살았지만 토굴에서 혼자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고도 했다. “토굴에서는



내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았다. 자신을 투명하게 돌아보며 느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래서 행복했다.”

스님은 잔잔한 예세이 곳곳에 선승으로서의 자기 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이 없다면 수행은 틈레마에 빠질 것이란 생각에서다. 그래서 스님은 글 곳곳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스님은 이 책을 쓰고는 다시 결망을 짊어졌다. 그리고 집과 부엌에 사는 고양이와 마루 밑의 쥐들, 뒤뜰에 사는 대나무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살은 떠남의 연속이다. 떠나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는 말을 남기고...

현성 스님은 1996년 괴산 공림사로 출가,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98년 계간 <포스트 모던>에 소설 ‘미인암(美人巖)’으로 등단했다. 송광사, 운문암 등에서 참선 정진하는 한편 해제 때는 깊은 산골의 토굴에서 정진하곤 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새로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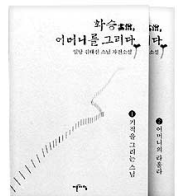
■ <바가반과 함께 한 나날>(테라라 자 무달라이라르 기록, 대성 스님 옮김, 탐구사, 1만3천원)= ‘20세기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바가반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의 어록 모음집. 1945년 3월부터 1947년 초까지 2년에 걸쳐 구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은 이 책에서 라마나 마하르쉬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무엇을 안다거나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 <길 밖의 길>(백무산 시집, 갈무리 7천원)=1997년 12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한 민중시인 백무산 씨가 1년 만에 펴낸 새 시집. 이번 시집에서 그는 ‘아무리 꺼안아도 바람 뿐인 몸/살은 저만큼 빠져나가고 바람으로 남은 몸’(‘바람도 없이’), ‘저 꽃이 건너온/강 건너 손을 내밀어 보네/수평선 넘어 불어오는 바람을 안아보네’(‘그곳에 매화’) 등 ‘바람’을 주제로 자유와 평화를 이야기 한다.

■ <내 영혼을 위한 시네마>(조하선 지음, 산티, 9천5백원)=태어나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된 트루먼이 자신의 실제 모습을 찾아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트루먼 쇼’와 부처님의 출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영화 ‘레옹’과 ‘동사서독’에 나오는 킬러가 명상을 한다? 번역가이자 문화평론가 조하선 씨가 ‘반지의 제왕’ ‘레옹’ ‘타베트에서의 7년’ 등의 영화를 구도와 명상의 관점에서 풀어낸다.

### 화가 스님의 파란만장한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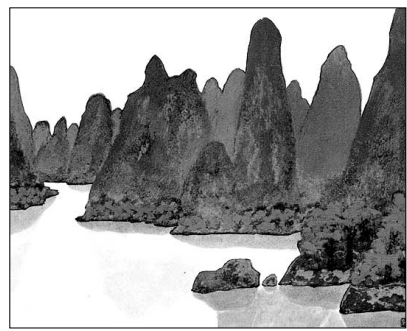
화승, 어머니를 그리다 일당 스님 지음 | 이문아침 | 전2권 | 각 권 9천원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말고 스님이라 불러라.”

일당 스님(1896-1971)은 14살 된 아들을 예산 수덕사에서 처음 본 후 이치령 매정하게 말했다. 이화여전과 도쿄제국미술학교를 나온 한국 최초의 여성 유학생으로 불가에 귀의한 일당 스님과 그의 유일한 혈육인 일당 스님(82)은 이렇게 처음 만났다.

일당 스님이 최근 파란만장한 일생을 담은 자전소설 <화승(畫僧), 어머니를 그리다>를 펴냈다. 2002년 발간한 <어머니 당신이 그리웁습니다>가 어머니 일당 스님의 생애를 다루는 데 대부분을 활애했다면, 이번 책에서는 일당 스님의 기도 역경을 그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일당 스님의 그림.

일당 스님이 유명 화가로 활동했던 스님은 1990년 한국에 정착해 66세에 경북 김천 지치사 조실 관승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고 현재 지치사 중앙에서 그림에 열정을 쏟고 있다.

### 만화 옛날옛적 우리 절엔



아름다운 우리 사찰 107가지 신기한 이야기 이규성 글/그림 | 문주사 | 9천원

이규성 화백의 <아름다운 우리 사찰 107가지 신기한 이야기>는 부처님의 도움으로 사찰을 세우고, 진리를 전하는 스님들과 선조들의 이야기를 만화로 재미나게 풀어 낸 책이다.

이 책에서는 가야산 해인사, 토함산 불국사와 석굴암, 조계산 송광사, 삼불산 운봉사, 팔공산 동화사 등 10개 사찰의 건립 배경 설화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설화와 전설 속에는 하나의 사찰이 세워지기까지 쓴 정성과 인연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 등이 나타나 있다. 그 속에는 불교의 가르침과 정신이 담겨 있고, 당시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정신과 실천행이 그대로 녹아있다.

김주영 기자 jkim@buddhapia.com

###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출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2	스님이야기	지록 스님 외	여시아문
3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스님	효리
4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형화 스님	이문아침
5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법원출판사
6	가장 행복한 공부	형화 스님	시공사
7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문화	이용 범	수회재
8	텐진빠오의 마음공부	텐진빠오	열린책들
9	불교수행법강의	남 회 근	세이움출판사
10	뉴욕타임스 기자의 대담서적기	리처드 밴스틴	꿈꾸는 들

도서 안내: (02)737-0695

최초로 과목을 친 바로보인 반야심경!  
전장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제현 선사님께서 과목으로 반야심경 내면에 흐르는 뜻을 밀밀하게 밝혀놓고 거침없는 송으로 들어보았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관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아강관, 스테형강관  
슬라브 사질,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011-379-0667  
강원도: 010-3044-9708  
경기도: 019-690-4018  
충청도: 011-327-7697  
경상도: 016-9294-8580  
전라도: 011-368-0667

### 조은칼라지붕공사

##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 면, 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와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 대구 중구영선동 [동삼아파트 지하 공방]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 아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방: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방)

##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부처님 가피로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행복하세요

7월의 하늘이 너무도 맑아  
가만히 바라봅니다  
살의 번뇌하나 가슴으로 남아  
요즘 어려운 경제 관제로 힘드시죠?  
다소 도움이 되어 보고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 이영숙 회장

■ 대추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32)345-5411  
휴대폰: 011)288-2944

##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활액순환장애 디스크

신전성 냉해 신축비량 남 습 진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관절염은 참 건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민속의화학자 권재우 동(경남 신성)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